201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논술고사 시간 14:00 ~ 17:00]

모집단위	학부·과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

1. 답안 작성 시 제목은 달지 말 것.
2. 수험번호, 성명 등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 드러낼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함.
3. 답안 작성 시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펜을 사용할 것.(청색/적색펜 및 연필은 사용 불가)
4. 문제지와 답안지의 문제 번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불일치 시 0점 처리)
5. 답안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함.
6. 답안 수정은 원고지 교정 부호를 사용하여야 함.(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음)
7. 각 문항의 규정된 자수에서 200자를 초과하거나 200자 이상 부족할 시 감점 처리함.

□ 지 문 □

(가)

아담 스미스(A. Smith)는 중국이라는 대제국을 집어삼키고 있는 지진을 상상해 보자고 한다. 인간애를 지닌 유럽인이라면 뉴스에서 이 사건을 듣고 분명 슬픔에 잠길 것이다. 그러나 한때는 몹시 슬퍼하고 그 문제에 대해 숙고했다고 하더라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만약 내일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잃어야 한다는 걸 안다면 누구라도 잠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1억 명이나 되는 인류가 죽는다 해도 한 번도 그들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코까지 골며 아주 편안히 잘 것이다. (……) 그렇다고 자신에게 닥친 이런 보잘 것 없는 불운을 피하기 위해 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해서 누가 1억이나 되는 생명을 기꺼이 희생시키려 하겠는가? 인간 본성은 그런 생각에 놀랄 것이고, 이 세계는 극심한 부패와 타락의 상태에서조차도 그런 생각을 떠올리는 악인을 낳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인가?

이 인용문에는 스미스가 '능동적 원리'와 '수동적 감정'이라고 불렀던 것에 대한 의문이 들어 있다. 곧 어떻게 해서 우리의 능동적 원리는 종종 아주 관대한 반면, 수동적 감정은 이토록 이기적일 수 있는가? 스미스는 이에 대해 "자기애라는 가장 강한 충동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인간애라고 하는 부드러운 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능동적 원리의 실천은, 예컨대, 빈곤한 나라의 아이들이 '왜' 죽어 가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 시작한다. 즉 도덕적 요구는 참여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성과 호기심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나는 오페라 입장료만큼의 돈만 있으면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이 죽어 가고 있을 때에도 오페라 관람을 했다. 중요한 것은, 오페라를 관람하러 갈 때 다른 사람들도 오페라에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을, 바로 그 아이들을 구할 수도 있었을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또한 내가 내 나라 혹은 내 지역의 일자리를 보호해 준다는 이유로 지지한, 바로 그 정책들 때문에 그 아이들이 죽어간 것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세계적 빈곤의 해결이라는 현실적인 도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돈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프리 삭스(J. Sachs) 같은 실천적 경제학자들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논증을 펼쳐, 아주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을 실제로 기울인다면 제3세계의 빈곤을 훌륭하게 퇴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삭스는 한 해 1,500억 달러 정도씩 20년만 들이면 사람들을 죽이고 삶의 의미를 고갈시키는 극단적인 빈곤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제시한 수치나 구체적인 제안 내용이 설사 절반 정도만 맞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일본의 국민들 각자가 지출하는 돈 중에서 하루에 45센트씩만 모아도 그 액수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불가능한 요구에 직면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두 손을 들기 쉽다. 그러나 세계적 빈곤 해결과 관련된 우리의 의무는 터무니없는 것도, 비합리적인 것도, 우리더러 삶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만약 우리가 도덕적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우리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에게도 멀리 떨어져 있는 불특정한 '이방인들'을 기억해 달라고 말할 것이다. 이방인들이 겪는 고통에 우리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이 아니라, 스미스가 "우리 가슴 속에 자리하며 우리 행동의 위대한 심판자이자 조정자인 이성, 원칙, 양심"이라고 부른 것들에 따라 우리가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도덕적 요구이다.

(나)

현재 각국의 용어가 불일(不一)하고 과거 역사적 문명 민족의 언어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현재 우리의 생활에 허다한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혹 오해도 생기며 혹 감정의 충돌도 유발되어 결국에는 무기를 들고 서로에게 겨누는 참사를 보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지라. 더욱이 각 민족의 특징과 천재의 소산인 문명을 종합하여 상호 간에 이익을 나누는 관계에 있어서도 그 용어가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막대한 어려움을 당하며 적지 않은 세력의 낭비를 하게 됨은 우리가 일상 경험하는 것이라.

우리 조선인은 근대 문명에 각성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미 각국의 문명을 수입할 필요가 가장 절실하고, 또 과학, 정치, 도덕, 예술, 그 밖의 모든 장점을 수입하여 조선 문명의 발달을 도모하지 아니하면, 생존 경쟁이 치열하고 능력의 계발이 필요한 이 시대에 그 생존을 유지하지 못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그러나 구미 각국의 언어가 대부분이 서로 부동(不同)하고 더욱이 조선어의 조직, 발음과 동일하지 아니하여 그 문명을 받아들임에 있어 첫째, 어학에 곤란을 당하며, 둘째, 그 어학에 비상한 노력의 소모가 따르니 이 어찌 전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축하할 바이며 우리 조선인의 발전을 위하여 기뻐할 바이리오. 이 실례는 단지 조선뿐 아니라 일본, 중국 역시 그러하며 또 동양뿐 아니라 실은 서양 각국도 그러하니 원래 문명 발달의 대업은 그 어떤 위대한 민족일지라도 그 한 민족의 능력만으로 완성하지 못하고 각 민족의 장점과 천재의 소산을 종합하여야 하는지라.

구미 각국이 그 문명을 발달시켜 생의 행복을 도모하려면 또한 타민족의 문명을 모방 혹 수입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그 어학에 적지 않은 곤란과 세력의 낭비를 당함은, 조선인이 학득(學得)*하기 어려운 한문 공부에 모든 노력을 소비하고 지금 일본인이 학득하기 곤란한 영, 독, 불어 연구에 그 힘을 낭비함과 마찬가지라. 그런즉 세계의 평화로나 문명의 증진으로 보면 언어의 국제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라. 국제연맹이 성립하여 세계의 협조를 도모하고 군비제한회의를 개최하여 세계의 평화를 도모할지라도 그 회의 용어에 대하여 문명 각국이 서로 싸우고 반목하는 현상으로는 그 바라고 기대하는 평화가 아직 요원할 수밖에 없도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불편과 화근을 제거하려는 일대 운동이 파사(波斯, 페르시아)에서 일어났으니, 이는 곧 바하이교의 언어국제화 운동이며 세계적 공통어로 에스페란토(Esperanto)의 채용을 주장하는 것이라.

(중략)

언어는 자연적 발달물이요 인공적 제조물은 아니라 하여 이 에스페란토에 반대하는 자가 있으며, 각 지방의 특수한 생활과 흥미는 그 지방의 고유한 언어에 의하여 발전될 것이요 인공적인 세계어로써 능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 에스페란토에 반대하는 자가 있도다. 이 반대론자에 대하여는 우리도 또한 동일한 의견을 가지기는 하나, 그러나 각 지방 방언만으로써 인류의 생활을 향상하며 세계의 평화를 기도(企圖)하려 하면 허다한 곤란이 생기는 것은 상술한 바와 같은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타국어를 학득하는 노력을 옮겨 공통어 학득에 사용하기를 희망하며, 될 수 있는 대로 이 학득하기 용이한 에스페란토를 가정에서부터 아동에게 가르치기를 희망하노라. 물론 언어는 자연 발달물이라. 그러나 이 자연 발달은 사회를 전제로 한 자연 발달이며 편의에 따르는 자연 발달이니, 이 국제적 용어가 비록 인공적이나 일반 사회의 용어가 되고 또한 편리하면 결국 자연 발달하여 세계 문화 증진에 다대한 공헌이 있을 것은 물론이라. 우리는 조선인이 이 운동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노라.

* 학득(學得): 배워서 얻음.

(다)

"난 커피 좀 안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 내 직업이 그런 탓도 있지만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마시는 줄 알어. 못 마셔도 칠팔 잔은 마신다구. 죽을 지경이야. 이번에 여행 가서는 다만 며칠이라도 커피라든가 이런 것 안 마시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모두들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맞장구를 쳤다. 그리고는 가서 우거짓국, 간갈치나 간고등어, 새우젓, 풀떼죽, 호박잎으로 오래 잃었던 자연의 미각을 되찾고, 단 공기와 그런저런 정경에 몸을 담그자고 맹세하였다. 다만 우리가 자란 고향으로 가자는 측과 어디고 그런 시골은 있으므로 구태여 고향이라고 못 박을 것 없이 전혀 딴 데로 가보자고 하는 측이 있었는데 결국은 후자로 결정을 보았다. 거기에는 또 우리 나름의 약간의 계산이 있었다. 그것은 고향 쪽으로 갔을 경우, 아직도 남아 있는 이런저런 관계에 얽매이다 보면 우리가 당초에 기도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일이 삐져 나갈지도 모르니까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보자는 것이었고 마침내는 모두가 이에 동의하고 나섰다.

(중략)

우리는 희멀건 무국 한 대접씩을 놓고 입에 침이 마르게 감격해 했다. 그것은 다분히 어떤 분위기에 애써 자기를 함몰시키고, 거기에서 자기 나름의 기쁨을 얻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가세된 것 같기도 했으나, 꼭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구석이 있었다. 우리는 아무리 돈을 준다고는 하지만 생판 알지도 못하는 껄렁한 손님을 넷이나 자기 집에 재워 주고 먹여 주는 인심이 도시 같으면 어림이나 있겠느냐고 고마워하면서 종일 그 집에서 뒹굴기도 하고 산책을 나가기도 하였다. 낮에는 또 그런 반찬에 옥수수로 빚었다는 노란 막걸리가 들어왔다. 짐작하겠지만 우리들은 또 한바탕 너스레를 떨면서 배가 띵하도록 마셔 대었다.

이날 저녁에도 우리는 아침과 비슷한 밥상과 옥수수 술을 받았다. 주인은 이번에도 찬이 변변치 않다고 노상 같은 말을 했으나, 우리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이런 걸 맛보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까지 왔노라고, 조금도 그런 생각 마시라고, 되레 미안해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아침이나 어젯밤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는 않았다. 마지못해 국물을 몇 숟갈 떠 넣었을 뿐 모두 입에 당기지 않는 것 같았다. 우선 나부터도 그랬다. 간밤부터 마신 막걸리가 쉰 냄새와 함께 목구멍에 괴어오르고 돌소금으로 이를 닦다가 생채기가 난 잇몸이 이따금 아렸다. 간밤에는 못 느꼈는데 남폿불에서는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한 옆으로 쌓아 놓은 이부자리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그리 넓지 않은 들판에 섰을 때는 그렇게도 속이 시원했는데 이틀째가 되면서부터는 들판은 그냥 들판일 뿐 별다른 감흥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산천이 마음속에 있을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막상 그 속에 파묻혀 보니까 갑갑하기만 하다고 윤경수도 말했다. 그는 더 말은 안 했지만 서울서 떠나올 때의 마음과는 달리 누가 자기의 생활을 이런 곳으로 끌어내릴까 봐 겁을 먹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우리는 주인집에서 빌려 온 화투로 섰다를 했으나 별로 신명이 나지는 않았다. 하루에 커피를 칠팔 잔씩은 마셔서 지긋지긋하다던 김성달이가 화투짝을 던지며 벌렁 나자빠졌다.

"커피 한 잔만 했으면 딱 좋겠는데."

"그러게 말이다……. 오늘 밤 텔레비전에서 쇼를 하는데 놓쳤군."

"쇼뿐야? 프로레슬링도 있다구."

윤경수와 최진철이 덩달아 화투를 팽개치고 길게 가로누우며 말했다.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 일찍이 허무하게 무너져 가고 있었다. 처음 여행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그저께까지 내리 우리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몰아세웠던 힘이 이렇게 쉽게 허물어지는 데 대해서 자기혐오 비슷한 감정이 있었으나 당장 눈앞에서 겪는 일들은 우리들의 얄팍한 감상(感傷)을 그렇게 덧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일상에 묻혀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회향(回鄕)에의

의지가 어느 날 갑자기 고개를 쳐들어 신나게 달려왔으나 가슴속에 간직해 왔던 그 낯익고 신선한 경이(驚異)를 즐기기에는 우리는 너무 소시민적인 안일(安逸)에 젖어 있었음을 확인한 꼴이 되고 말았다. 사실 우리는 이번에 길을 떠나면서, 우리는 우리가 자란 그런 두메에 언젠가는 내려가자, 그런 꼬투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내려가면 그럴 만한 야산이라도 추렴해서 사두는 게 어떻겠느냐는, 진담 반 타산 반의 약속까지 하고 온 터였으나 막상 현지에 와서는 아무도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단순히 자고 먹는 것의 불편에서 오는 것만은 아니고 무어라고 말할 수 없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쌓아 온 생활과의 위화감이랄까 하는 데서 오는 것이기도 했지만, 아무튼 불과 이틀 밤을 보내면서 우리는 벌써 서울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

이민은 빈곤에 대항하는 가장 오래된 실질적 행동들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빈곤에서 벗어나기를 가장 강하게 바라는 사람들을 명확하게 선별한다. 또 그것은 노동력 증가의 측면에서 그들의 이주 희망 국가에 유리한 것이고, 고질적 빈곤 타파의 측면에서 그들이 떠난 나라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민자들의 증가는 이주 희망 국가 사람들의 염려와 저항 역시 불러일으키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근원이 있다.

첫째로는,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의 대량 이주에는 사회 불안과 알력이 따르기 일쑤였다는 데 있다. 일부 유대인 범죄자들이 상당한 악명을 떨쳤던 뉴욕이 그러했고, 아일랜드인이나 이탈리아인이 건너왔을 때의 뉴욕과 보스턴도 그러했다. 최근의 이민도 마찬가지로 긴장과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긴장과 사회 불안은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일부 이주민에 의해 야기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현상은 실제보다 부풀려지거나 더 오래 영향을 끼친 것으로 잘못 여겨지고 있다.

둘째로는, 확보될 수 있는 고용량이 일정한 상황에서 이민자가 단지 자국 노동자를 대신하게 될 뿐이라고 하는 경제적 계산에 있다. 당연한 것이지만, 경제는 노동력과 더불어 성장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수익이 증대된다. 독일의 경제는 이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독일 경제에서 유입된 노동력이 없었더라면 1인당 소득도 더 낮았을 것이다. 그리고 독일, 스위스 및 오스트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주 노동자의 유입 증감을 통해 고용의 변동에 대처해 왔다. 이처럼 이주 노동자는 해당 국가의 필요에 의해 유입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자국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 이는 독일, 스위스 및 오스트리아의 노동조합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이민 역사의 대표적 일례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이루어진 유럽인들의 대규모 미국 이주에서 찾을 수 있다. 19세기 스웨덴은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인구의 약 90%가 농촌 지대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나아가 심각한 식량 부족 문제가 존재하였다. 이로 인해 1861년에서 1910년까지 백만 명을 넘는 스웨덴인이 미국으로 이주해 갔다. 이 이민에 의해 스웨덴의 농촌 지대에 번영의 꽃이 피게 되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스웨덴의 농촌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그 번영은 실현되지 않았을 것이다. 스코틀랜드인이나 아일랜드인과 마찬가지로, 이주해 갔던 스웨덴인은 자신의 빈곤 문제와 고국에 남은 사람의 빈곤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던 것이다.

이주 당시, 다른 모든 이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스웨덴 이주민들에 앞서 미국에 정착한 이주민들은 강한 우려의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스웨덴인의 문화와 생활방식 그리고 언어가 미국인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다. 그러나 언어와 문화적 문제는 그들이 한 세대 만에 완전히 미국 문화권에 동화됨으로써 해결되었다. 처음엔 자신이 지녀 왔던 정체성을 내세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자신을 그냥 미국인으로 여기는 이민자의 비율이 높아졌다. 유럽으로부터 이주한 백인 이민자들의 경우에 다른 국적 간 결혼 비율이 높았던 것도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주민들은 개인적 노력으로 빈곤을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활발히 이동하며, 지금의 미국이라는 용광로(melting pot) 사회가 만들어지는 데 크게 일조하였던 것이다.

(마)

『춘추(春秋)』*의 "공(公)이 잠(潛) 땅에서 융(戎)과 회맹(會盟)*했다."는 내용에 대해 하휴(何休)는 "왕이 된 이는 오랑캐를 다스리지 않으니, 오랑캐인 융을 기록한 것은 오는 자는 막지 않고 가는 자는 쫓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였다. 천하의 체계에 극히 엄격하고 법도의 사용이 극히 상세한 것으로는 『춘추』보다 더한 것이 없으니, 무릇 『춘추』에 공(公)이라고 쓰고 후(侯)라고 쓰고 자(字)를 쓰고 이름을 써서 그 군주가 제후가 되고 그 신하가 대부가 될 수가 있는 것은 거개가 제(齊)나라와 진(晉)나라요, 그렇지 않으면 제나라와 진나라의 동맹국이다. 주(州)라고 쓰고 국(國)이라고 쓰고 씨(氏)라고 쓰고 인(人)이라고 써서 그 군주가 제후가 되지 못하고 그 신하가 대부가 되지 못한 것은 거개가 진(秦)나라와 초(楚)나라요, 그렇지 않으면 진나라와 초나라의 동맹국이다.

제나라, 진(晉)나라의 군주가 국가를 다스리고 천자를 옹위하고 백성들을 사랑하여 양육하는 것이 어찌 모두 옛 법도에 부합할 수 있겠는가? 역시나 속임수와 무력에서 출발하여 인의(仁義)를 겉들인 것이니, 이것이 제나라, 진나라가 순수한 중국이 될 수 없는 까닭이다. 진(秦)나라, 초나라 역시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으며 멋대로 행하고 예의를 살피지 않으나, 또한 도를 따라 의를 행한 군주가 있으니, 이것이 진나라, 초나라 역시 순수한 오랑캐에는 이르지 않은 까닭이다. 제나라, 진나라의 군주가 순수한 중국이 아닌데도 『춘추』에서 인정한 경우가 늘 있으니, 선한 일이 있으면 서둘러 기록하여 행여 후세에 알려지지 못할까 염려하고, 잘못이 있으면 여러 방면으로 열어주고 용서하여 행여 군자가 되지 못할까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진나라, 초나라의 군주가 순수한 오랑캐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춘추』에서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늘 있으니, 선한 일이 있으면 여러 번 선행을 한 뒤에야 올려주고, 악한 일이 있으면 생략하고 기록하지 아니하여 기록할 만한 것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는 유독 제나라, 진나라만 두둔하고 진나라, 초나라만 치우쳐 미워해서가 아니며, 이를 통해 중국은 하루라도 등져서는 안 되고 오랑캐는 하루라도 편들어서는 안 됨을 보인 것이다. (……) 그러므로 말하기를 "천하의 체계에 극히 엄격하고 법도의 사용이 극히 상세한 것으로는 『춘추』보다 더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융을 어찌 다만 진나라, 초나라가 오랑캐로 흘러 들어간 것에 비기겠는가. (……) 융은 교화하여 가르쳐 회유하고 복종시킬 수 없는 자들로, 저들이 무력에 기대 우리와 더불어 변방에서 사납게 전쟁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인데, 또 하물며 이른바 회맹이라는 것이 있음을 알아 행하고자 하였으니, 어찌 그 뜻을 심히 가상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 그 예법을 심하게 나무란다면 저 융은 장차 감당하지 못하고 그 노여움을 폭발시킬 것이니, 이렇게 되면 그 화가 크게 된다. 공자(孔子)께서는 이를 깊이 우려하셔서 그들이 온 것에 대해 '회맹하였다'라고 쓰고, 이와 같이 하면 충분하다고 여기신 것이니, 이는 다스리지 않음으로써 철저히 다스리고자 하신 것이다.

* 『춘추(春秋)』: 공자가 편찬한 노나라의 역사책으로, 간략한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해 은미(隱微)한 평가를 담았다고 알려짐.
* 회맹(會盟): 모여서 맹세한다는 뜻으로 중원의 예법에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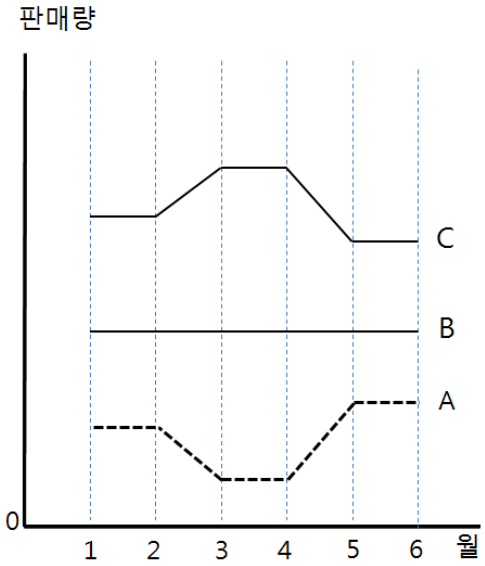
□ 문 항 □

【문항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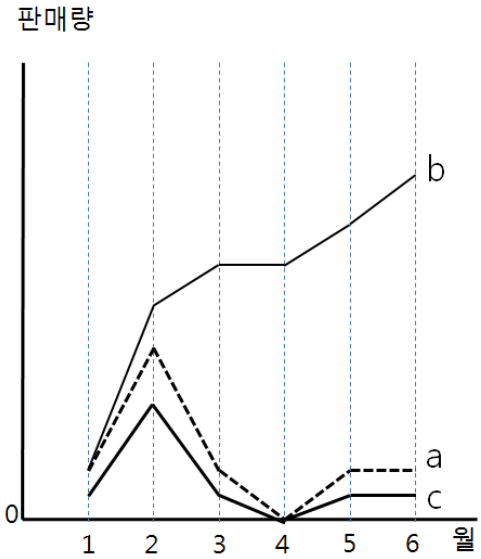
(가)의 내용을 250자 정도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것을 (나)~(마)에서 모두 찾아 (가)와의 차이점을 각각 밝히시오. **(총 600자 내외, 배점 30점)**

【문항 2】

아래 <그림 1>과 <그림 2>는 상품별 월 판매량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들을 보고 아래의 물음 1), 2)에 답하시오. **(총 500자 내외, 배점 20점)**



<그림 1> A, B, C의 월별 판매량 추이



<그림 2> a, b, c의 월별 판매량 추이

* 주) 그림에서 상품별 판매량 단위(개, 대, ㎡, ㎢, g, kg, cc 등)의 차이 및 중고품 판매는 고려하지 않음.

1) <그림 1>에서 'A' 상품의 추이가 전반적인 경기에만 영향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B', 'C'는 각각 어떤 상품에 해당할지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6점)**

2) <그림 2>에서 'a'는 이전까지 자동차가 없던 국가에 처음 출시된 자동차라고 가정할 때,
   (1) 'b'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상품 하나를 예로 들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4점)**
   (2) 'c'에 해당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판매량을 증진시킬 방안을 서술하시오. 단, 다른 부류의 상품에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품질 향상, 디자인 향상 등)은 제외하시오. **(10점)**

【문항 3】

나는 그 병을 들여다보았다.
"이제 알았어요."
빠른 목소리로 나는 말했다.
"이 병에서는 안이 곧 밖이고 밖이 곧 안입니다. 안팎이 없기 때문에 내부를 막았다고 할 수 없고, 여기서는 갇힌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

위 제시문에서 병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가)~(마)의 주된 내용을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시오.

(1,200자 내외, 배점 50점)